

월/요/광/장

이원일



필자가 국제무대에 뛰어들고 각국을 여행하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이 있다. 전혀 문화권과 풍습이 다른 곳에서 이질적 정치,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빚어진 촌극들과 실수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그 못 잊을 추억 속에 적응하지 못했던 서구의 음식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장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필자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촌놈’일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뉴욕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짧지 않은 세월을 공부하게 되네 시절에도 가장 고��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먹을거리’ 문화의 차이였다. 당시 80년대의 뉴욕에는 한국식당이 그리 많지도 않았고, 김치를 파는 곳을 어렵게 찾아내도 비싼 달러화를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값이 상대적으로 싼 피자집이나 햄버거가게로 발길을 돌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도 김치에는 중독성이 있었던 모양이다.

중년이 되어 여행을 많이 해야 하는 현

재도 직업의 특성상 전 세계의 주요 허브 공항들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뮌헨공항, 이탈리아 밀라노의 말펜자 공항, 파리의 드골공항, 그리

고 아시아의 베이징 공항 등이 필자의 단골 작륙지 들이요, 공항입장에서 보면 필자가 단골 손님이 되어 버렸다. 같은 장소를 무수히 반복 착륙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들르는 공항식당들도 이제는 필자를 기억하는 반갑게 맞아 주는 곳이 많아졌다.

물론 이렇게 ‘반가운’ 손님으로 자리매김 되기까지에는 필사적이기도 절박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바로 김과 김치의 전성기가 그것이었다. 언젠가부터 인천공항에서 휴대용 포장 김과 포장 김치, 고추장, 멸치 등을 발견하고 부터는 생존을 위한

‘전투식량’들을 필사적으로 비행기에 실은 후, 도착한 공항의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주문한 후 슬그머니 포장 전투식량들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는 웃지 못할 풍경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소시지와 밀라노의 피자, 파리의 바케트 위에 김치와 김, 멸치들이 섞여지는 필자만의 ‘삼합’, ‘사합’, ‘오합’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주변 손님들의 따가운 눈총과 웨이터들의 항의(특히 냄새와 관련된)에 맞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껏곳곳하게 버티

삼합의 위력

는 것이 무척 힘들었으나 이젠 너무도 당당히 나의 삼합들을 세계 어느 식당에서도 꺼내 놓게 되었다. 이미 같은 얼굴과 같은 ‘행태’를 여러 번 목격한 현지 웨이터들도 이미 포기 한 것 같아 이제는 당당함을 넘어서 천연덕스러운 ‘삼합’의 강사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묵은 김치와 돼지고기 수육, 홍어를 올려놓는 전라도의 명품 토속음식인 삼합이 아니라 현지 음식과 전투식량이 섞인 필자만의 급조된 삼합이지만 말이다.

바야흐로 ‘하이브리드(섞임과 공존)’의 전쟁시대가 도래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가 출시되었고 더욱 빈번해진 21세기의 문화교류는 하이브리드의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인종 간의 하이브리드 케이스요, 남미의 메조티조(추구선수 호나우두의 외모)가 ‘특수화’를 넘어 ‘일반화’된 하이브리드다.

광주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감삼’하게 되는 삼합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부터 이 삼합의 묘미와 속성미, 배합의 지혜들을 세계화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시대이기에 그 고민과 도전이 더욱 유효해진다. 필자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휴대하고 다녔던 비닐포장전투식량들에게도 이제는 좀 더 당당한 신분과 지위를 부여해 주고 싶다.

전라도의 흑산 홍어와 돼지고기, 김치의 배열과 조합에 의해 명품 음식으로 탄생한 이 삼합의 위력을 세계에 알리고 단지 명품 음식의 반열에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남도 선조들의 ‘가치’와 ‘지혜’를 세계화하고 싶은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전지구적 ‘웰빙’ 시대에 맥도날드의 ‘트리플’ 버거라는 미국식 삼합보다는 우리의 삼합이 더욱 빛나는 조합으로 주목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스위스 BSI 재단 상임 큐레이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범죄 발생률 전국 최고인 ‘문화수도’ 광주

광주·전남지역의 5대 범죄 발생건수와 인구 1만명당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삼재철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5대 범죄발생건수는 2만3천706건으로 전국 평균치의 2배가 넘는 40.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2만1천149건으로 5년새 16.5%가 증가했다. 5대 범죄는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1만명당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광주의 민생치안 부재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의 지난해 1만명당 범죄 건수는 163.8건으로 제주를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외지인 출입이 빈번한 제주 지역 특성을 감안한다면 광주가 사실상 전국 최고의 범죄 발생도시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인력부족 타령도 이번에는 설득력이

없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줄었으나 오히려 범죄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지난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515명으로, 1년 전(528명)에 비해 2.5% 줄었는데도 각종 범죄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광주지방경찰청이 문을 열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불안지수는 더 높아진 셈이다. 최근 발생한 굽직한 강력사건 수사 역시 제자리 걸음이어서 민생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인력과 장비들 재배치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룸 밀집지역 등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와 방범등 같은 범죄예방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범죄발생 전국 최고도시라는 오명은 문화수도 광주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도 경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시설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농어민 ‘삶의 질 개선’ 구두선 안 돼야

〈구두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도입된다고 한다. 이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열악한 사회 기반 등으로 도농 간 생활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교통, 주거, 건강관리, 응급의료, 교육, 복지, 정보통신(IT), 문화·여가 등 8개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에 담아 시행키로 했다. 농어촌에 기초 생활 여건의 최소 수준을 정해 누구나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농 간 생활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농어촌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도시의 71%, 1km당 학교 수는 도시의 13%에 불과하고,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는 98.1%인데 농촌은 63.4%에 불과

하다. 전국의 1천417개 읍·면 중 급급차가 아예 없는 곳이 60%가 넘는 870곳에 달한다.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도시에 비해 의료·복지 등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훨씬 큰데도 오히려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농촌의 열악한 삶의 질은 이농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중과 도농 간 갈등 등 고질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이 자칫 ‘구두선(口頭線)’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도 농식품부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시성 정책이 아닌지의 심도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이번 발표가 일회성 ‘딤 서비스’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것은 인간 사회의 특장 중 하나다.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재판제도가 그것이다. 이는 국가나 체제 유지의 방편이기도 했다.

고대사회의 형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동해(同害)보복이 근간이었다. 탈리오의 법칙을 규정한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이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 때문에 죄와 벌의 균형은 오랜 논쟁거리였다. 현명한 판관들이 존경을 받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88올림픽 직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사건의 주범인 지강현은 인질극 과정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을 세상에 던졌다. 그는 500여만원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에 보석감호 10년을 선고받아 감형의 희망으로 살고 있었는데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면 이같이 항변했

다. 이 말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이른바 ‘교무줄 양형’ 때문이었다.

재벌 회장은 수백억 원을 횡령한 죄가 인정됨에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합의를 국회의원이거나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살인과 뇌물 등 8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마련

돼 시행에 들어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그 사유를 판결문에 적도록 했다. 기업인의 횡령·배임죄는 범죄 액수를 5개 유형으로 나누고 50억원을 넘을 때는 실형을 선고도록 했다.

다. ‘문자가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 경우 징역 8~15년으로 형량이 정해졌다.

이 기준은 지난달 1일부터 기소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제 시행이 교무줄 형량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양형기준



법조 칼럼

강성두



누구나 살면서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평소 경찰서 입구조차 가질 꺼려하는 시민들의 경우 자신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혐의나 범죄 사실이 사실과 다를 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한다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 상황 등 여러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충실하게 국선변호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는 아무래도 사선변호에 비해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큼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감정이 없음에도 피해자들과 감정적인 충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타박하는 변호인이 마음에 들 리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게 되고 종종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생활하는 제가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국선변호 유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다가 지금은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있으며,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변호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조그마한 봉사활동의 일환도 된다는 마음으로 나를

그러나 가끔 국선변호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변호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인연, 혹은 선임으로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형사피고인을 위하여 국가가 선정해준 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건당 20~30만원 정도의 보수를 국가로부터 받고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변호를 합니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우호적으로까지 생각하기는 힘들겠지만, 도를 넘어서는 감정표현에 대해서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절대 그에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자 혹은 그 가족 역시 나중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도 피해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옹호해주는 국선변호인을 원하게 되실 겁니다. 〈변호사〉

식당 등 공공장소 애완견 출입 제한해야

최근에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을 갔다가 저녁 시간에 어느 횃집을 갔었다. 우리가 앉은 옆 좌석에는 부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애완견을 데리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는 식당을 개를 데리고 왔다는 것에 기분이 약간 상했다. 사실 애완견은 그 주인에게만 사랑스러운 거지 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애완견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손님을 위해 내어놓은 접시에 고기를 담아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접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반찬을 담든지 회를 담든지 해서 사용할 것 아닐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개가 썼던 접시라는 것을 알다만 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사랑하는 애완견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장소에 데리고 갈 때는 다른 사람의 기분도 고려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사랑스럽지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 ▲김선강·광주시 북구 용봉동

기고

윤삼현



백양나무 은빛 숲길을 달리는 싱그러운 자전거 물결을 상상해 보자. 파도가 넘실대는 바닷가 일주도로를 거침없이 저어가는 상쾌한 자전거 대열을 상상해 보자. 두 개의 은빛살 바퀴가 힘차게 굴러가는 그림은 자못 싱그럽다. 저절로 생명력이 차오른다. 인간의 호흡이 느껴진다. 자전거는 친인간적인 문명의 이기요,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이다.

자동차의 홍수 시대를 맞으면서 급기야 지구촌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지구 온난화로 예측하지 못한 기상 이변과 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거기마다 골목마다 자동차 정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숨 막히

를 받는다. 이를 피해 차도를 이용할 경우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심심찮게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객이 사고를 당하는 이유다.

이제 도시의 교통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시각이 확 달라져야 한다. 교통정책을 수정하고 적극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규모 있게, 실용성 있게 시설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 한다. 시민의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 시내 웬만한 곳은 자전거로 목격치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려야 하는 것이다. 유투브 달리는 자전거 물결은 명품도시로서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최근 광주와

이제는 자전거 시대

는 한바탕 주정차 전쟁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건강을 해친다. 거기다 가속도를 내는 잘못된 운전습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모른다.

저탄소 녹색시대의 실현은 그래서 더욱 시선을 끈다. 이것은 지구촌이 열망하는 새 시대의 화두다. 저탄소 녹색시대를 주도할 방안으로 자전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전거는 따로 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음의 염려가 없다. 힘차게 페달을 밟는 다리의 회전운동이 에너지다. 대기오염, 주차난, 소음공해를 해결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 현대인의 건강까지 증진시켜주는 생명존중의 최상의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가. 광주의 경우를 보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 유명무실하다. 큰 도로나 외곽도로 인도에 흰 선의 자전거 도로가 표시되어 있어 얼마간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좁고, 노점상이나 가게 물건, 시설물 등 통행에 장애

영산강을 잇는 자전거길 소식은 그래서 기대를 모은다.

전남의 경우를 보자. 영광에서 목포를 거쳐 여수, 광양까지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자전거로 달리는 시대를 계획하고 있다. 녹색의 땅 이미지에 걸맞은 총 1,729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길을 착안한 것이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고 성공하여 저탄소 녹색산업 시대를 주도해 갔으면 싶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길 주위에 꽃과 나무를 심고, 쉼터를 곳곳에 조성한다면 친환경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끌어올릴수록 생태 환경이 살아나고 도로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해지며 여가선용의 기대치를 제고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상당해질 것으로 믿는다.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행복지수를 높이리라 확신한다.

〈광주·전남야동문학인회장〉

올바른 구조수칙 익혀 의사사고 줄이자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에서든지 의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사고의 대부분이 안전규칙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데서 생긴다. 다음과 같은 수난사고시 구조요령을 잘 익혀두면 사건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119구조대나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면, 주위사람들에게 사고사실을 크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줄이나 허리끈, 페트병, 가방 등의 주위물품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뚜껑이 있는 페트병, 스티로폼 등을 가방에 넣고

물에 던지면 튜브 역할을 하게 된다. 줄이나 허리끈을 던져도 효과가 있으며 여러 사람이 팔을 잡아 조난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도 간단한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것도 대 가족과 이웃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올바른 구조수칙을 항상 마음에 새겨 대 가족과 친지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일을 없애야 할 것이다.

▲유민용·일곡119안전센터 부센터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 F A X 227-0118>	경영 지원 국 2200-511 < F A X 222-8005>	문 화 홍 보 국 2200-541 <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61 <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대처부 2200-679	자 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1	제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자 진 부 2200-691				
<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